“전두환, 집단발포 전 광주서 회의했다”

5·18 계엄군의 고백

<6> 허장환 505보안대 수사관

21일 오전 전교사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재우 보안부대장 등과 회의
서의남 대공과장이 광주 다녀갔다 말해…통신병 ‘실탄 지급’ 전문 보고
24일 전교사-공수여단 송암동 오인사격으로 광주 폭격설 나돌아
보안사 주도 5·18 시나리오 짜…전두환-이학봉-서의남 라인 있어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자행되기 직전인 1980년 5월21일 오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있었다. 전두환이 다녀간 후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만난 광주 505보안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70·당시 상사·사진)씨는 “5·18 기간 중 전두환은 분명히 광주를 방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씨는 “5월21일 오후 5시께 열린 보안대 회의에서 서의남(중령) 대공과장이 ‘오늘 사령관님이 다녀가셨다. 바쁘셔서 우리 부대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일러줬다”며 “회의가 끝난 후 보안대 통신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통신병이 ‘자위력 구사, 실탄 지급’ 등이 적힌 사령관 주재 회의내용을 보안과에 전문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그날 오후 6시 이후 ‘자위력 구사’라는 명목으로 발포 명령이 떨어졌고 나도 콜트 권총과 실탄 7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전문에 전두환이 21일 오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를 방문, 헬기로 광주 일원을 살펴보고 전교사 기밀실에서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3·7·11공수여단장 등과 회의를 열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 회의에서 자위권 구사, 공수부대 시 외곽 철수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허씨는 또 5·18 기간 중 광주가 가장 위기였던 순간으로 5월24일을 꼽았다. 5월24일은 광주시 남구 송암동 효천역 부근에서 매복 중이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소속 보병학교 교도대대 병력이 차량 이동 중이던 11공수여단 63대대 병력을 시위대로 오인, 90㎜ 무반동총 등으로 공격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이날 63대대원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허씨는 “사건 직후 이학봉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에게 비화기전화(감청을 차단한 특수 전화)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며 “이 처장은 나보고 혼자 전화를 받으라고 말한 뒤 ‘여순사건과 비슷한 것 아니냐. 교도대가 광주시민의 편을 들어 공수부대를 공격했는지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당시 505보안대 소속 수사관 중 자신이 유일한 경상도 출신이라 이 처장이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에 밀려 광주외곽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윗선에서는 광주 주둔 군부대까지 항쟁에 동조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며 “만약 현지 반란으로 인정된다면 광주를 폭격할 수 있다는 말이 보안대 내부에서 돌았다. 실제 계획서는 본 적이 없지만 경기도 오산비행장에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허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5·18이 터지기 전 윗선에서는 광주에서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며 “부마 항쟁처럼 공수부대를 투입해 겁을 주면 광주를 제압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막상 심한 반발에 부딪치니 당황하는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5·18은 기획됐다”고 못박았다.

“1980년은 사령관(전두환)이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가 되고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다. 하지만 ‘서울의 봄’이 오니까 차기 대통령감으로 김대중이 꼽히던 상황이다. 전두환 정권찬탈의 가장 큰 걸림돌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광주를 폭동화시킨 것이다.”

허씨에 따르면 보안사가 주도적으로 5·18시나리오를 짰다. 이미 ‘서울 수괴 김대중. 광주 수괴 홍남순 변호사, 종교반 김성용 남동성당 신부(중간 수괴), 폭도반 박관현·윤석루, 학생반 김종배(당시 조선대 3학년)·윤한봉(전남대 축산학과 학생회장), 재야반은 황석영 등’으로 조직도를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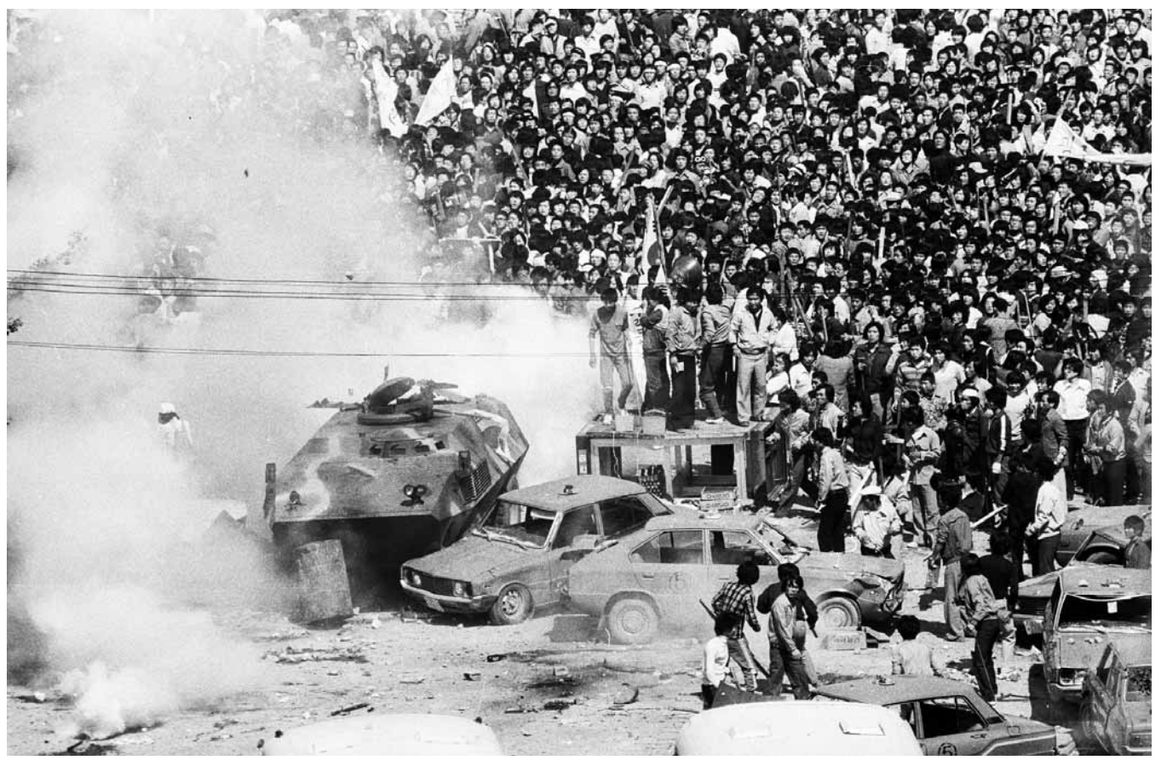
‘이때 아니면 출세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505보안대 수사관들도 적극 나섰다. 허씨는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 서의남 과장을 지목했다.

허씨는 “전두환-이학봉-서의남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었다”며 “서 과장이 예비 검속 등 계획을 짜면 이학봉이 승낙하고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988년 12월6일 서울 평화민주당 당사에서 ‘광주사태의 사전 조작 및 발포 책임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지난 30년 간 침묵을 깨고 최근에는 각종 언론들과 접촉하며 5·18 실상을 전하고 있다.

허씨는 “전 전 대통령의 정권 찬탈도 좋은데 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했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전 전 대통령은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범죄자로 영원히 낙인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화천=김용희기자 kimyh@



집단발포 직전 긴박한 순간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의 긴박한 순간.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장갑차, 택시 등을 앞세우고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비후보 돈봉투 전달 의혹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 조사

함평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9일 주민 A씨가 함평선관위를 찾아와 선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퇴직 공무원 출신 B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봉투 한 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뒤늦게 봉투에 5만원권 지폐 10장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일찍 돈을 되돌려줬으며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기업가보다는 농민 사정을 잘 아는 모 후보를 밀어야 함평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정식으로 등록한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10대 집단폭행

동부경찰, 1명 영장·3명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1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문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달 15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골목에서 김모(19)군을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일행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김군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은 당시 혼자 있었으며 특별한 저항은 하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문씨 일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군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이 보복 폭행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충동조절 장애 고교생 아파트 추락 사망

충동조절 장애를 겪던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A(17·고3)군이 추락해 숨졌다.

A군은 이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으며 3분 뒤 아파트 1층에서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군은 이날 버스 종점에 내려 인근에 있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A군은 이후 충동조절 장애를 겪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군의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었다. A군은 발견 당시 휴대폰, 지갑 등 소지품이 없었고 지문에서도 비교할만한 대조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미성년자로 추정하고 광주교육청과 연계한 끝에 21일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은 유족,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옆사람 백스윙에 맞아 시력장애…“골프연습장 배상 책임”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보드 쪽을 등지고 연습하던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닭가게 돈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여종업원이 ‘슬쩍’

쌍나팔

○…자신이 일하던 통닭가게에서 손님이 낸 돈을 슬쩍한(?) 40대 여성 종업원이 경찰에 덜미.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49)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의 한 통닭가게에서 업주 A(여·48)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0여만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꾸 돈이 없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자리를 자주 비우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 가져간 돈은 그대로 있으니 돌려주겠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